

여행작가가 들려주는 세계 속 우리 무형유산

국립무형유산원, 15일 정태경 작가와 함께 하는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인문학 강연'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소공연장에서 '2023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무형유산원은 2018년부터 일상 속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인문학 강연'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공연예술가 판관현준이 'K-콘텐츠 속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마련된 여행작가 정태경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시간은 여행작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세계 속 우리 무형유산의 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형유산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강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14일까지 책마루 누

리집(<http://library.nihc.go.kr>) 또는 전화(063-280-1578, 070-4905-1296)로 신청하면 된다. 강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통문화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전북도, 숨은 관광지 발굴 위해 12일~7월 3일 접수... 일반·특별 부문 진행

전라북도 지역 유구한 전통문화를 빛내고 숨은 관광지 발굴을 위한 전통문화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일반부문과 특별(스마트폰, 드론)부문으로 진행되며, 전북의 자연경관 및 역사와 문화, 명소 등 모든 관광자원을 소재로 지역·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이달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한다. 도는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특선 8명, 입선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대 2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수상작은 7월 31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향후 홍보자료 등에 활용되며, 많은

이들이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8월 4일부터 7일간 전북예술회관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전라일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진과 전북도 관광산업과장은 "전북의 숨겨진 아름다운 관광지 발굴과 함께 전라북도만의 매력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문화관광을 더욱 활짝 꽃 피워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라북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하모니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폐막식 영화 음악으로 장식



지난 6일 오후 7시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폐막식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장식했다.

지난 6일 오후 7시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폐막식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장식했다. 이번 연주는 영화 음악으로 우리들에게 친숙한 보헤미안 랍소디와, 라이온 킹외에도 레이디스마치, 그레이트 무비 어드벤처, 디즈니 필름 페이보릿을 연주했다. 특히 단원들이 직접 곡 해설을 한 점이 인상 깊었다.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규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었다. 안미영 감독님 지휘 아래 12명의 강사진들과 함께 연주한 60여명의 단원들은 작년보다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함성과 박수 갈채를 받았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는 한전MCS 무주지점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단원들에게 도시락을 후원해주었으며 마지막까지 공연을 관람한 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관우 무주청소년수련관 관장은 "단원들이 성장한 만큼 많은 이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연주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예비 웹툰 잡!카데미' 10일 개최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신설 기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오는 10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신설 기념 '예비 웹툰 잡!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비 웹툰 잡!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청년 진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에 웹툰 분야의 실전 교육을 목표로 씨앤티리블루션(주)와 한국전과진흥협회가 '리얼! 웹툰 잡!카데미'로 선정돼 전국 6개 지역 내 10개 기관과 공동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전라권역에서는 유일하게 웹툰만화콘텐츠학과가 신설되는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웹툰 산업 현황과 웹툰 직무·진로 소개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지역 청년에게 웹툰 산업 분야 취업교육과 일 경험의 기회를 제시하고, 웹툰관련학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과 관계자에게 진학에 필요한 입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신청은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 홈페이지

2024년 신설 전주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

반짝반짝 Ho!

의 작가 역사씨, 친직 웹툰 PD가 함께하는

웹툰 좋아하세요?

전주대로 오세요!

토크콘서트

2023.6.10 (토) 13:00~16:00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

<p>콘서트 내용</p> <p>· 웹툰 관련 진로 소개</p>	<p>행사 일정</p> <p>13:00 ~ 14:30 웹툰 작가란? & QnA 14:30 ~ 16:00 웹툰 PD란? & QnA</p>
<p>참가 대상</p> <p>· 웹툰 작가, 웹툰 PD, 스토리 개발자 등 웹툰 관련 비즈니스에 관심있는 학생</p>	<p>문의처</p> <p>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웹툰만화콘텐츠학과 http://www.ju.ac.kr/human/ 입수영 - 020-8000-1111</p>

지(<https://www.ju.ac.kr/human/index.jsp>)를 통해 6월 9일까지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관, '제55회 전북미술대전' 수상자 배출

수채화 부문 이지연·최수영 씨 수상

김제시 평생학습관 교육생 2인이 지난달 개최된 '제55회 전라북도 미술대전'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라북도 미술대전은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 주최, 전라북도 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공모전으로 지난 5월 19일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등 10개 부문에서 공모를 개최하고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 31일 시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제시 평생학습관 소속 수채화 반(강사 최명덕)은 수채화 부문에 출전하였으며 수강생 이지연씨가 '장지도 서리꽃'을 출품해 특선을, 최수영 씨가 '산수유'를 출품해 입선하는 한편 각 수상작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실에 4일간 전시되었다.

수상자 중 이지연씨는 "장자도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만난 할머니 머리에 서리꽃이 핀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평생학습관 수업 중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학습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연이은 평생학습관 수강생의 좋은 성과는 김제시 평생교육이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평생학습관은 지난달 '제11회 대한민국 나라사랑 미술대전' 캘리그라피 부문에 출전하여 7인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지연 - 장지도 서리꽃



최수영 - 산수유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